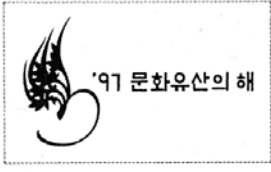


# 방방곡곡 정신 살찌우는 야외 강의실

## 답사기 미리 읽고 떠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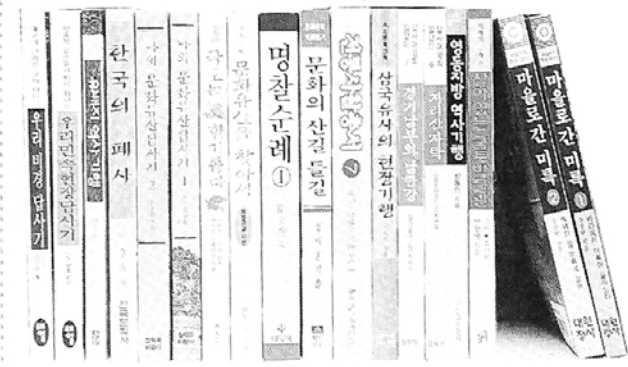


역사와 문화의 향기를 찾아가는 문화유적 답사여행은 삶의 재충전 기회인 동시에 내면의 삶을 지우는 훌륭한 강의실이다. 문화유산의 해를 맞아 올해 이같은 문화유적 답사나 순례가 더욱 활성화 될 전망이다. '97 문화유산의 해 조직위원회'(위원장 고병익)는 '문화재 전문가와 함께 하

는 유적답사' 대학박물관 주관 문화유적 순례 '역사의 현장 세미나' 등 13건의 '문화유산 알기' 사업을 통해 유적, 인물 등 주제별 답사코스를 개발 보급할 예정이다. 문화유산을 돌아보며 조상의 숨결을 느끼는 여행이 젊은 층을 중심으로 붐을 이룬 것은 3, 4년전 부터. 최

근에는 다양한 문화유적 답사회가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유적지, 명산고찰을 찾아가는 답사기와 전통사찰 안내서 또한 꾸준히 팔리고 있다. '문화유산 답사기' 하면 떠오르는

유홍준교수가 이끄는 한국문화유산 답사회의 <답사여행의 길잡이>(플레게) 시리즈, 정재훈씨가 쓴 <문화의 산길 들길>(화산문화)도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다. 현재 전북 경기남부와



### '명찰순례' 등 1백여권 출간 안내서 역할 고찰등 민족 유산 역사·의미 상세히 소개

책은 단연 유홍준교수(영남대)의 <나의 문화유산답사기>(플레게)다. 90년대 한국출판의 최대 성과로 꼽히는 이 책은 세인들이 무심코 지나치기 쉬운 우리 문화유산을 바라보는 시각을 제시하고 학자들의 전문물만 생 각되었던 답사여행을 대중화시켰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갖는다. 93년 5월 출간 이래 100여권에 이르는 답사기 출판 붐을 조성한 책이기도 하다.

남한강권 등 7권이 나와있는 <답사여행의 길잡이>는 문화유산을 독자들이 직접 느끼고 찾아볼 수 있도록 철저한 답사여행 실용서로 꾸며진 것이 특징이다. <문화의 산길 들길>은 전국 각지의 문화유적들을 30여년간 직접 발굴조사하고 보존관리해 온 문화재 전문위원이 쓴 답사기다. 불교문화재를 소장하고 있는 전통 사찰을 찾아가는 답사기도 많이 나와

있다. 최완수씨의 <명찰순례 1, 2, 3>(대원사), 이고운·박설산씨가 함께 쓴 <명산고찰따라>(전 4권·운주사), 사찰문화연구원의 <전통사찰총서>, 이재준씨의 <한국의 폐사>(한국문화사) 등이 대표적인 책들이다. <명찰순례>는 불교문화유산에 대한 미술사학적인 해박한 지식이, <명산고찰따라>는 정교한 고찰을 대부분 수록한 점과 간략한 사적기와 악도를 곁들인 점이 돋보인다. <전통사찰총서>는 충분한 답사와 문헌조사 등을 통해 가장 방대한 자료를 수록하고 있어 지역 단위 답사 안내서로 적합하다. <한국의 절터>는 백제지역의 절터를 중심으로 폐사지를 소개한 답사기다.

문화유산을 찾아가는 답사기는 이밖에도 다양한 유형을 갖고 있다. 국토순례 답사기로는 <국토는 향기롭다>(미래사) <우리 비경 답사기>(태일) 등이 눈에 띈다. 민족·민중신앙 답사기에는 <우리 민족 신앙 답사기>(태일) <마을로 간 미륵 1, 2>(대원정사) 등이 있다. 또한 역사인물을 찾아가는 답사기에는 <유배지 역사기행>(집현전) <선현을 만나다>는 <길>(자작나무)이 있다.

김재경 기자

### 명사추천

#### 새들이 떠나간 숲은 적막하다

자연의 가슴에 심연깊은 애기를 쏟아 놓으며 귀한 도반과 함께 석남사를 찾았다. 가을 나뭇 고요히 떨어지는 채전 발에는 잿빛 의상 걸친 배추를 담은 눈빛이 잘 걸러진 햇살에 반짝인다.

96년 5월 생터사에서 발행된 이 책 <새들이 떠나간 숲은 적막하다>가 내손에 들어 올 때는 이미 10쇄를 기록하고 있었으나 많은 사람들의 사랑과 관심을 끌고 있음이 분명했다. 절 입구 선물센터에서 고운 도반에게 받은 선물이기에 성의를 생각하면서 저자 법정스님의 새로운 향기가 궁금해 하루만에 다 읽은 책이다.

법정스님은 이미 15권(번역서 포함)이란 많은 책을 집필하셨고 무소유자로서 거룩한 법으로 세간의 존경을 받고 있는 분이다. 필자와도 인연은 한 번 스친 적이 있다.

2년전 부산에서 '맑고 향기롭게'라는 슬로건 속에 부산 KBS홀에서 제1회 행사를 치를 때이다. 법정스님은 단상에서 설법하시고 필자는 발원문 낭송을 하게 되었다. 그때 수천명의 불자와 일반인들이 복도의 멀티 비전을 통해서 계단 곳곳에 쭈그리고 앉아 스님의 법문을 들었다고 운집해 있음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책 내용을 살펴보면 저자의 일상 생활을 통해서 자연과 인간과의



강문숙 (시인·봉경서예학박사)

#### 소박·진솔한 표현속 진리가득 독자에게 반성의 시간 주는 책

관계가 하나로 통하는 마음의 문을 열고, 가족과 나를 사랑하며 이웃과 부처님께 귀의하는 소담스런 애기로 엮어 나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어떤 사람과 어울려 무엇을 위해 살고 있으며, 어떤 삶을 최고 가치로 삼고 나의 모든 것을 지켜보는 눈은 누구이며, 이웃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새벽에 귀 기울여 들어 보라고 하는 말씀에 내 마음은 첫 눈을 밝는 듯한 상쾌함을 느꼈다.

침묵의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감사가 기도며 기도의 마지막 단계는 침묵속의 명상임을 알고 시시로 나는 누구인가를 물으라는 화두도 내리고 있다. 한쪽의 난이 말벗으로 앉은 초막 위의 달을 보며 시를 짓고 백년을 찾아 2천리길, 동백꽃 낙화에도 살아있는 아름다움을 찾아내는 이 책은 한 편의 서정시를 품고 있는 청초함이 서려있다.

고마운 자연을 끊임없이 허물고 더럽히는 과학적이고, 물질적이고, 이기적인 현대인들에게 언젠가는 거스르지 말고 가슴으로 사랑하라고 이 책은 강조한다. 또한 이 사회가 총체적인 부정부패로 전락하게 된 것도 따지고 보면 개인이 하루 한 때라도 자신의 삶을 안으로 살펴보는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갖지 못하는데 있음을 지적하기도 한다.

육체의 죽음은 공간적 육체와 시간적 의식을 없애는 것이지만 자연의 죽음은 그 모든 것을 영원한 파멸의 무덤으로 이끈다는 생각을 하니 부처에서 일어나는 작은 사례가 하나에도 정성스레 걸려있었다는 생각을 해 본다.

이 시대 모든 이들에게 쉽게 공감할 수 있도록 엮어진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모두 반성의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본다.

### 출판화제 '일연사상 민족화합의 길' '한국의 불교미술' 개정판

고영섭씨, 계간 '화두와 실천'에 발표

11년만에... 한국문화·단청 등 추가

'일연스님은 고려 건국이래의 통일전쟁과 몽골의 침탈로 인한 국분분열의 과정을 살펴본 민족화합의 길을 불교적 에너지로 통해 회통시키고자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끌고 있다. 계간 <화두와 실천>(실천승가회) 겨울호에 고영섭(동국대 불교학과 박사과정)씨가 발표한 '일연의 통일학'이란 논문이 그것.

고씨는 이같은 주장의 근거로 일연스님이 <삼국유사>를 통해 우리 전래의 하늘(天)을 불교적 용어에 착안하여 제석천(帝釋天)인 천제왕인인 석제왕인(법화경)에서는 환인이 된다고 해석한 점 등을 든다. 또한 고려 재조장경 관각에 주도자로 참가해 민족의 에너지를 <대장경>이라는 거대한 문화체로 종합 정리해 내려는 의지를 보인 사실 등을 든다. 결국 분열된 후삼국의 통일을 일심(一心)으로의 회귀와 불교적 이상국가란 비전의 제시를 통해 한 민족의 단일성을 재고시켰다는 설명이다.

한편 이번 호 <화두와 실천>에 실린 '정부의 종교정책을 점검한다'(김정자), '국토개발과 사찰환경의 파괴'(홍광표) 등의 글도 읽을 만하다. (02)725-4277

도서출판 대원정사(대표 장상건)는 문화유산의 해를 맞아 스테디블서인 <한국의 불교미술> 개정증보판을 11년만에 펴냈다.

불교미술의 정의로부터 불상 탐 석등 부도 불화 불교 공예 등 불교미술 전반을 알기 쉽게 소개한 이 책은 그간 불교미술의 전체 구도를 파악하는데 큰 기여를 해왔다. 특히 이번 증보판에서는 禪 문화의 올바른 이해를 추구하는 글과 고려불화 등 한국 불화에 대한 심층적인 고찰을 추가했다. 또한 단청 부분도 새롭게 추가, 불교미술 전반에 대한 입문서로서 완벽한 체계를 갖추었다. 양식민·예솔문적 고찰과 함께 교리적인 해설도 녹여 넣었다.

신국판 406쪽, 8천5백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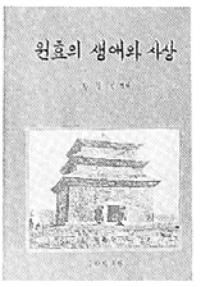


### 행적·사상 등 자료 빠짐없이 정리

원효의 생애와 사상 황영선 편저

황영선 변호사(63)가 쓴 <원효의 생애와 사상>은 원효의 생애와, 행적, 사상 등 방대한 관련자료를 빠짐없이 모아 엮은 원효 연구서다. 아마추어리플을 바탕으로 하면서도 현지 답사와 다양한 자료수집에 심혈을 기울여 신국판 806쪽의 무게있는 연구서를 엮어냈다.

제1장 '원효의 생애'편에서는 원효의 가계(家系), 탄생, 수학 및 출가의 전과정이 관례설화와 사찰연기 등과 함께 서술되어 있다. 제2장 '원효의 사상' 편은 원효의 주요 저술 22권과 특징적인 사상을 정리했다. 이중 원효의 <발심수행장> <대승기신론소방발기> <금강상대경론>과 일체무애(一切無礙)·귀일심원(歸一心源)·화평(和靜)사상에 대해서는 따로 節을 두어 해설했다. <극작자료원 1만5천원>



### ◇금주의 베스트블서 10 책방 역시이론 집계

순위	도서명	저·편자	출판사
1	생활속의 기도법	일 타	효 립
2	도술전에서 만났시다	장 순 용	세 계 사
3	삶은 풀가 아니다	해 원	여시아문
4	종생이라는 이름의 부처에게	현대불교신문	여시아문
5	그 마음을 바쳐라	김 재 용	용 화
6	禪 이야기	일 지	운 주 사
7	네 발 밑부터 살피라	정 념	장 승
8	49재 공덕과 의미	편 집 부	이 바 지
9	불교입문	조계종교원	조 계 종
10	한글 아함경	고 익 진	동대출판부

구입문의: (02)737-0695

### 새로나온 책...

▲마음은 보석(김성규 지)= '이 름' 백년결사운동 지도법사로 활동하고 있는 김성규 교수(영남대 의대)가 쓴 우리말 <금강경> 해설서. 누구든지 이해하기 쉽도록 번역하되, 개략적인 해설을 붙여 전체적인 이해를 돕고자 했다. <신구문화사 7천원>

▲보현행원품(한정섭 강)=보현행원 품은 53선지식을 찾아 진리를 구하는 선재동자에게 마지막 구도행을 가르치는 보현보살의 행으로 화엄경법문의 총결이다. 한정섭법사가 정관(澄觀)스님의 행원품소(行願品疏)와 규봉(圭峰)스님의 수소초(疏抄)를 중심으로 번역 해설했다.

▲나를 이는 지는 나를 찾고 나를 모르는 지는 나를 찾지 말라(송혜 지)=부산 기원정사 주지 송혜스님의 법어집. 다른 법어집과 달리 '마음의 극락' 허공은 무서운 거다' 등 72편의 계승으로 구성되어 있다. <관음출판사 5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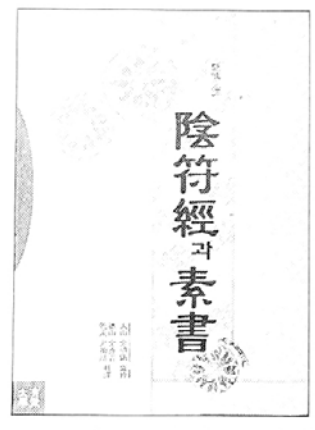
▲효경대의(정태현 역)=전통사회 윤리관의 중심사상이었던 효를 다룬 <효경(孝經)>은 공자와 그의 제자 증자(曾參)의 문답 중에 효도에 관한 것을 추린 책. <대학>이 학문의 근본을 밝힌 책이라면 <효경>은 행동의 준칙을 밝힌 책으로 아동으로부터 군왕에 이르기까지 필독서였다. 정태현교수(민재 국역연구원)가 토를 달고 완역했다. <전통문화연구원 7천원>

▲이이는 스낵 먹듯이 영어를 배웠어요(한미진 지)=특파원 '아빠를 둔 6살짜리 아이가 미국에 가서 영어를 익히며 미국 생활에 적응해 가는 과정을 엮어낸 저자가 에피소드 형식으로 재미있게 풀어 쓴 책. '우리 아이는 어떻게 해서 영어를 잘 하게 되었는가'에 초점을 두었다. <책만드는집 6천5백원>

### 대유학당의 저서

# 陰符經과素書

## 자신있게 권하는 『음부경』과 『소서』의 완전번역



보더라도, 상식과 재미를 더할 수 있을 것이다.

※ 4×6배판, 343쪽  
정가 12,000원(별책부록 포함)

## 주역전의대전역해 (周易專義大全譯解)



의리학과 점학의 양대 기둥이며 주역을 연구하는데 있어 필독서인 정자의 『정전』과 주자의 『본의』를 국내 최초로 완역하고, 그밖에 내용 설명에 필요하다 생각되는 부분은 주석을 덧붙였다. 부록에는 두 선현의 문인계보도와 함께 문인들의 약력을 실었다.

※ 4×6배판, 장서용, 호화장정  
총 1601쪽, 상·하 각 30,000원

대유학당 : 서울시 종로구 숭인2동 261번지 화성빌딩 3층  
전화 : (02) 232-8383  
팩스 : (02) 234-1786

# 周易傳義大全譯解